

서로의 손을 잡아
혼자에서
우리가 되다



하나가 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교정공무원

Re: Assemble

혼자에서 함께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위기에는 더 강해집니다. 월간 <교정>
3월 호에는 교정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정의 가치와 의미를 담았습니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밀양구치소
- 12 **생각의 접점**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이어가다
밀양구치소
- 14 **응원의 선물**
수용자와 세상을 잇다
밀양구치소 사회복귀과
- 18 **물고 답하다**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밀양구치소 총무과 교감 박종석 & 보안과 교사 이상협
- 22 **교정의 가치**
웃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작은 거인
밀양구치소 교정위원 남지연
- 24 **취미의 공유**
말과 함께 행복으로 향하다
대전교도소 교위 유동진 가족
- 28 **전문가에게 묻다**
힘차게 스윙, 짜릿한 쾌감
스쿼시 원 포인트 레슨으로 실력 Up!
홍성교도소 교사 김종관
- 32 **나도 패션왕**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다
의정부교도소 교감 염웅렬
- 36 **교정 안에서**
교도소 담장 너머도, 꽃은 피어난다
안동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이문경
- 38 **교정의 일기**
서로에게 응원이 돼 주는 존재가 되자
홍성교도소 교위 정우성

Re:mind

- 40 **새로운 만남**
삶은 성실하게 도전은 꾸준하게
개그맨 서경석
- 44 **여행 속 휴식**
문학기행 명소
봄날의 '책' 산책
- 48 **문화가 중계**
잘 나가는 OTT 드라마 이것이 다르다
기존 드라마의 틀을 깨다
- 50 **맛의 탐방**
봄 바다의 보물(貝物)
바지락
- 52 **교정 리포트**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①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3월호 Vol.550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유영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3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24SI
카카오톡 story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힘차게 달려온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밀양구치소



“

지난 2011년 개청한 밀양구치소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합니다. 체계적인 보안으로 질서를
유지해 교정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 친화적
교정시설입니다.

”



개청 전 밀양구치소 전경

2011년 밀양구치소 개청식



밝은 미래와 따뜻한 교정을 이루다

“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으로 행복한 교정을 만듭니다.

”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국민 안전에 힘쓰다



2015년 벽화 도색 작업 중인 접견 통로

“
밀양구치소는 수용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로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 생활과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



2021년 가족화상접견 중인 수용자 모습



“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2011년 교정교화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모습

수료식&순결서약



심리 안정과 내면 치유를 생각하다

“

밀양구치소는 수용자의 정서적
함양과 심성 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수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연구개발실 등을 갖춰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



2020년 그림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를 통한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국내 최초 중간 처우 시설을 만들다

“ 함께 변화를 이뤄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출소 예정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



밀양희망센터

국내 최초의 중간 처우 시설인 '밀양희망센터'는 출소 예정 모범 수형자 10명이 함께 생활하며 직업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수용자는 한국카본(주) 작업장으로 출근해 작업에 투입되는 등 다양한 사회 복귀 훈련을 받습니다.

2013년 밀양희망센터 개관식



“ 밀양희망센터 수형자는 은행 체크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구입하고,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 견학, 봉사 활동 등을 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이어가다 힘이 되는 든든한 동료 이야기

밀양구치소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고 같이 밥을 먹는 내 옆의 동료뿐일 것이다.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할 때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나기도 한다.

나와 함께하는 _____ 동료는 [] 이다.



행복을 주는 사람들

교감 최기철

사회복귀과뿐만 아니라 밀양구치소의 모든 교정공무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은 기본이고,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 함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믿음이 가는 존재

교위 박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앞으로도 서로 잘 돕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웃음 바이러스

교위 박재훈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옆에 동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이 많지만,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만능 해결사

교위 손원광

평소 우창덕 교도 덕분에 많은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필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창덕 교도만 있다면 어떤 일도 문제없습니다.



둘도 없는 파트너

교위 심병진

모든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이지만, 특히 저의 대직자인 전진석 교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든든한 가족

교도 우창덕

때로는 가족이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도 고생하고 있어요. 교정공무원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교정교화로

수용자와

세상을 있다

밀양구치소 사회복귀과

수용자 교정교화는 형 집행과 법 수호
만큼이나 중요한 교정기관의 핵심
임무다. 그 중심에는 사회복귀과가 있다.
특히 밀양구치소는 중간 처우 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용자와
세상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MINI INTERVIEW

상호 존중의 미학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직원이 힘
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를 아
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
습을 볼 때마다 ‘사회복귀과의 미래는 밝다’
고 확신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처럼만 상호 존중의 미학을 이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교정교화의 풍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귀과 교감 최기철



수용자의 일상에 전하는 의미와 기쁨

사회복지과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처우를 관장하는 부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각 분야 교정위원들이 소속된 교정협의회와 관리와 운영, 각종 교육 프로그램 주관, 서신·도서·신문 관리 및 배포, 가족 만남의 집과 가족 만남의 날 운영, 귀휴 관리, 종교 행사 등을 통해 수용자들이 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구성정 사회복지과장과 8명의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밀양구치소 사회복지과도 이러한 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수용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과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한편 수용자가 교정기관 안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세상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는 일이 중요한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자의 처우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질감 없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접철된 지난 2년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의 교육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중지됐다. 수용자들의 커다란 기

쁨이었을 면회인 접견과 가족 행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서신, 도서, 신문조차도 엄격한 소독 절차를 거친 뒤 수용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수용자 처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바깥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수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의미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을 걷어 내고 희망을 선사하다

사회복지과는 감염병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본에 집중했다. 수용자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신, 신문, 도서를 평소와 같이 배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외부 강사 대신 해당 분야를 공부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용자 처우 보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화상 접견이 대표적입니다. 기존에는 가족들이 밀양구치소까지 직접 와서 수용자를 접견해야 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하니 원격으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2년 가까이 가족 접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90세 넘는 한 수용자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들을 보게 해 줘서 고맙

“ 수용자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현재와 미래를 건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오늘도 교정교화와 처우 개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은 그 자체로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보람으로 다가왔죠.”

다양한 교정교화 활동과 처우 개선 활동을 경험한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상을 발견하는 것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큰 기쁨이다. 수용자들의 얼굴과 눈빛에 깔려 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절로 떠오른다는 게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출소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 그만큼 사회의 혼란도 가중됩니다. 우리가 형기를 엄격하게 집행하되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죠. 수용자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현재와 미래를 건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오늘도 교정교화와 처우 개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든든한 징검다리

밀양구치소 사회복지과는 중간 처우 시설인 밀양희망센터의 운영 및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가석방을 3~9개월 앞둔 전국의 모범 수용자 중 일부를 선발해 지역사회 내 회사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 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평일 주간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지정된 기업체에서 일하고, 평일 야간과

휴무일에는 보안과 직원이 상주하며 수용자들의 생활을 관리한다. “사회생활 체험이 필요한 가석방 예비 수용자들이기에 생활 지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과 휴무일에는 문화 프로그램, 상담, 자치 활동, 취미 생활, 귀휴, 봉사 활동, 종교 행사 등을 진행하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죠. 나아가 출소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3명이 해당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이렇듯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밀양구치소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선물을 준비했다. TV, 차량용 청소기, 마사지 건이 바로 그것. TV는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해 수용자 교화방송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차량용 청소기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사무실과 직원들의 차량 청소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사지 건은 사회복지과 직원뿐 아니라 인근 과 직원들과 함께 쓰며 피로를 풀 생각이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마음에 더욱 와닿는 교정교화 활동에 힘쓰는 한편 ‘석방 전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귀휴’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용자 사회 복귀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밀양구치소 사회복지과 직원들. 수용자들의 희망찬 내일을 향한 이들의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상
협보안과
교사박
종
석총무과
교감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밀양구치소 총무과 교감 박종석
& 보안과 교사 이상협

동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2년



2017년부터 3년간 총무과에서 힘을 합쳐
일했던 박종석 교감과 이상협 교사가
오랜만에 티타임을 가졌다.

지난 2년여의 대소사를 풀어내던
두 사람의 대화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박종석 교감과 이상협 교사는
한목소리로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이상협 교사 — 오랜만에 교감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 무척 기쁩니다! 모르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일할 때 교감님을 지켜보면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하시면서도 틈틈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상을 즐기시는 모습이 후배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박종석 교감 — 그때가 아마 내가 총무교감으로 일하고, 이 교사는 급여 업무를 담당했을 때였죠? 일이 바빠서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업무를 넓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 교사를 보며 내심 흐뭇했어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살뜰하게 키우는 이 교사가 인생 선배로서 대견하기도 했죠. 보안과에서 일하면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이상협 교사 — 소장님을 포함한 밀양구치소의 모든 직원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용자와 직접 만나는 보안과 특성상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 덕분에 지금껏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정공무원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똘똘 뭉치는 단합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2년이었는데요. 교감님도 이번에 동료들의 힘을 실감했던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박종석 교감 — 이 교사 말대로 동료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준 2년이었어요. 이 교사에게 고마웠던 일도 있었죠. 작년 12월에 민원실 직원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민원실 직원이 관사에 자가 격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용자 구매품 판매가 중단됐는데, 내가 이 교사에게 연락해서 구매 처리 업무를 부탁했죠. 처음 해 보는 업무라 어려웠을 텐데, 영상통화까지 한 끝에 책임감 있게 구매품 업무를 도와줘서 수용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때 참 고마웠어요, 이 교사!





선배님의 말씀대로
앞으로의 20년간 넉넉한
인심을 품은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ncourage
trust

믿음과 격려를 불러오는 기본과 원칙

이상협 교사 — 밀양구치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교감님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교정공무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저야말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 교감님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동료들의 힘을 느꼈던 순간을 되짚어 보니 임용 직후 보안과 목욕 근무 중 있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하네요. 당시 수용자 2명에게 목욕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며칠 뒤 둘 중 한 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신입 시절이었기에 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노랬는데요. 다행히 제가 규정대로 정확하게 근무를 선 모습이 CCTV로 남아 있었고, 투서를 쓴 수용자 한 명이 같이 목욕을 한 수용자에게 양심을 품어서 거짓으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심적으로 크게 힘들었지만, 동료분들의 굳은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에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종석 교감 — 임용 초기에 큰일을 치렀군요.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이 교사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교사가 말했던 동료의 믿음과 격려가 어려움을 이겨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교사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기에 동료들이 이 교사에게 신뢰

이 교사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잘 지켜서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든든한
교정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교사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거나 CCTV 영상에 근무에 태만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면, 동료들도 무한정 믿음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동료들과의 굳건한 믿음이나 팀워크는 스스로의 기본과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은 동료 간 신뢰와 단합력의 밑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교사가 당시의 일을 때때로 회상하면서 기본과 원칙, 초심의 중요성을 되새긴다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성공적인 교정공무원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한층 풍성한 삶을 만든 선후배의 정

박종석 교감 — 이 교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하랴, 아이 키우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상협 교사 — 교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 또래의 모든 가정이 그렇듯 출근, 퇴근, 육아, 취침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실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스마트폰 배경 사진을 보면 금세 피로가 싹 가시죠. 교감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색소폰 연습에 열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석 교감 — 맞아요. 이 교사도 알다시피 워낙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2년 전부터 색소폰을 사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밀양에 있는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해서 길거리 버스킹, 요양병원 음악 봉사활동 등을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활동을 멈춘 상태예요. 하지만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 앞에서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을 거듭하고 있죠. 인생을 살다 보니 일도 좋지만, 종종 취미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색다르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협 교사 — 총무과에 있을 때도 교감님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취미 하나를 가져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캠핑인데요. 텐트 하나 들고 가족들과 한적한 곳을 여행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오면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교감님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뿐 아니라 제 삶에도 큰 도움을 주신 셈이죠.(웃음)

박종석 교감 — 이 교사가 그렇게 말해 주니 교정공무원 선배로서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네요!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 교사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잘 지켜서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든든한 교정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협 교사 — 항상 웃으면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업무적인 면도 지속해서 돌봐 주셔서 늘 교감님께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말씀대로 앞으로의 20년간 넉넉한 인심을 품은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감님!



웃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작은 거인

밀양구치소 교정위원 남지연
(싱글벙글 글로벌 비전연구소 소장)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죄의 무게에 눌러 긍정성과 자신감을 잃은 수용자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밀양구치소 교정협의회에서 교화분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작은 거인’ 남지연 교정위원이다.



폭발적 에너지로 웃음을 전파하다

남지연 교정위원은 스스로를 ‘싱글벙글’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한다. 별칭에 걸맞게 그의 입가에는 늘 기분 좋은 미소가 걸려 있다. 그는 자신의 웃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주 앉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권한다. 그가 대뜸 “자, 한 번 따라 웃어 보세요!”하며 “하하하!”웃자, 마음 깊이 껴묻 숨겨 났던 웃음보따리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다가 싶더니 금세 폭죽처럼 터져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는 이렇게 폭발적인 긍정 에너지로 수많은 수용자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벌써 13년째 이어 온 일이다. “2006년 한 경찰공무원의 부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분들을 위한 웃음치료와 심리상담을 진행했어요. 이를 계기로 2010년 밀양구치소 개청 전부터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인성교육, 교화상담, 웃음치료 등을 진행했죠. 그 뒤 밀양구치소뿐 아니라 부산구치소, 경주교도소 등에서도 폭넓게 활동하며 수용자들에게 웃음의 힘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를 좋게 봐 주신 덕분에 2018년 제36회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받은 상금 전액을 수용자도서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지만, 수용자와의 첫 인연은 그보다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지사로서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봉사를 펼쳐 나가던 그에게 한 지인이 부탁을 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죄의

식과 무력감 때문에 초조감이 돼 간다며 그에게 심리 상담을 요청한 것. 남지연 교정위원은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주기적으로 수용자를 찾아갔고, 만날 때마다 생기를 되찾는 그와 마주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분이 몇 번의 상담 끝에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말을 저에게 건넸을 때 얼마나 커다란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는지 몰라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까지 했던 사람의 마음을 돌린 귀한 경험을 하며 기회가 닿으면 수용자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밀양구치소 개청과 함께 교정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웃으면 행복한 삶이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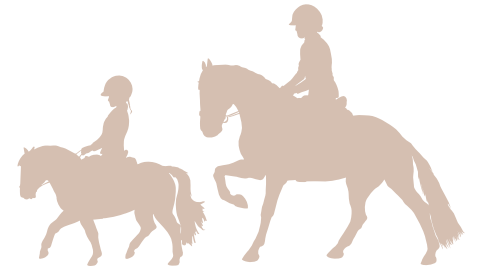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낮아지고, 활기를 불어넣는 엔도르핀의 분비량은 늘어난다. 남지연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는 대신, 누구보다 먼저 박장대소를 터트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용자들은 거울 효과로 인해 하나둘 웃게 되고, 이내 그 공간에는 웃음이 가득 들어찬다.

“웃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웃음치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실제 사례를 종종 만나요. 바깥에서 강의를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교정기관에서 저에게 웃음치료를 들었던 출소자였어요. 제가 다녀간 이후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봉사활동도 다닌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방화를 저질렀던 한 수용자는 웃음치료 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웃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웃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수용자들이 있기에, 10년 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정위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지연 교정위원은 “웃음이 나지 않더라도 웃는 것이 웃음치료의 핵심”이라며, “웃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과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할 때는 상대의 장점을 먼저 떠올리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으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원 포인트 레슨도 전한 그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 웃음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래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 주세요. 확실하게 웃음의 효과를 느끼게 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싱글벙글 웃어 봅시다! 스마일!(웃음)”

말과 함께 행복으로 향하다

대전교도소 교위 유동진 가족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봄기운과 함께한 첫 승마

오전에 먹구름이 드는가 싶더니, 유동진 교위 가족이 승마장에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하늘이 맑아진다.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에서 초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진다. “오늘 말 타기 좋은 날인데요?” 세 사람에게 마구를 건네던 강사가 즐거움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덕분에 설렘과 긴장이 깃든 승마 초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오늘은 유동진 교위 가족이 다 함께 말을 타 보는 역사적인 날이다.

“딸아이가 뭔가 타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 덕에 자전거 타기가 우리 가족의 취미가 됐죠.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도 어느새 익숙해져서는 저희 부부를 추월하고 다닙니다. 게다가 아이가 또 동물을 좋아해요. 이런 점들을 모두 아우르는 체험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승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관광지에서 말타기 체험을 해 봤기 때문일까요? 말을 타러 가자고 하니 아이가 두 팔 벌려 환영하더군요.”

유동진 교위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딸 소연이가 원형 트랙에 갓 들어온 말과의 거리를 거침없이 좁힌다. 자기보다 두 배쯤 키가 큰 말에게 용기 내어 손을 내미는 소연이. 말이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챈 것일까. 처음 보는 아이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얌전하게 받아들인다. 그 모습 자체로도 마음이 파스해진다.

세 식구가 원형 트랙에 들어온 말 세 필의 등에 각각 앉는다. 말을 처음 타 보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전문 강사 세 명이 각각의 말에 붙는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강사가 허 찰는 소리를 내자, 말이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보셨죠? 말에게는 ‘쫘쫘’ 소리가 출발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세 식구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말이 원형 트랙에 들어서자, 열한 살 딸이 스스럼없이 그 앞에 다가선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손을 내미니 말이 커다란 얼굴을 아이 손에 붙인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유동진 교위 부부. 세 식구의 승마 체험은 이렇듯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시작됐다.



앞으로도 이어질 말과의 시간

어느새 45분이 훌쩍 지났다. 일반 레슨을 위해 등을 빌려준 말들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다. 말에서 내린 세 사람이 고맙다는 표시로 말의 목을 쓰다듬자, 말들이 다시 한번 ‘푸르륵’ 소리를 낸다. 말들도 유동진 교위 가족과의 시간이 좋았던 모양이다. 소연이가 또 타고 싶다며 못내 아쉬워하자, 강사가 마구간을 구경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 그 말을 기다리더라도 한 듯 순식간에 저만치 앞서 나가는 소연이. 그런 딸을 바라보는 유동진 교위의 시선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사실 저는 저때때 상당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심 딸도 소심하게 지낼까 봐 걱정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쏟은 덕분인지, 지금은 저렇게 활발하고 예쁜 딸로 자라났어요. 얼마 전 집라인을 타러 갔을 때 처음에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트리더니, 한 번 타 본 뒤로는 또 타고 싶다고 말할 만큼 용감해졌어요. 눈앞에 놓인 벽을 조금씩 허무는 아이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마구간에 들어서자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은 말들이 세 사람을 반긴다. 그중 유독 목을 길게 빼고 다가서는 한라마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소연이. 어느새 어릴 적 동심을 되살린 유동진 교위 부부도 말과의 한때를 마음껏 즐긴다. 아무래도 이번 승마 체험에는 ‘대성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과장을 것 같다.

“아빠, 또 말 타러 올 거죠?” 승마장을 나서는 길, 소연이가 유동진 교위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그 귀여운 눈빛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으랴. 아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을 듣고 신나서 폴짝폴짝 뛰는 소연이. 유동진 교위 가족의 취미 리스트에 승마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다.

사람과 말의 즐거운 교감

말은 사람이 만든 탈것과 다르다. 말이 등에 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만큼 사람도 말의 상황에 잘 맞춰야 비로소 승마다운 승마가 이뤄진다. 이 점을 가장 먼저 터득한 이는 말과의 교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소연이다. 말의 목과 엉덩이를 가볍게 다독인 소연이가 말이 걷는 리듬에 맞춰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자, 강사가 아이에게 묻는다. “동물 많이 좋아하죠?” 소연이가 “네!” 대답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씩 웃는 강사. “뿌요 발걸음이 가볍기에 물어봤는데, 역시 그렇군요.” 소연이가 탄 17살 한라마 뿌요가 말을 알아들은 듯 ‘푸르륵’거린다. 긴장이 풀렸을 때 말이 내는 소리란다. 어른들의 첫 번째 승마도 순항 중이다. 말타기가 조금 무섭다던 아내 김정화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긴장 풀린 표정으로 말갈기를 쓰다듬는다. 유동진 교위는 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강사에게 열심히 질문한다. 곧이어 부부가 탄 두 말도 ‘푸르륵’ 소리를 내며 긴

장이 풀렸음을 알린다. 그러자 강사가 말을 타는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한다. “보통 말을 처음 타는 분들은 무섭다고 허리를 잔뜩 굽히시는데요. 허리를 딱 펴고 시선을 멀리 뒤야 말을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몸의 균형도 잘 잡히고, 말도 편안하게 사람을 태울 수 있죠.” 이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의 허리가 일순간 쪽 펴진다. 승마 모범생 가족이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배움의 자세다. 세 식구 중 승마 에이스는 단연 소연이다. 소연이의 말타기 자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강사가 일반 레슨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내용을 하나둘씩 알려준다. 안장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균형을 잡아 보도록 한 뒤, 이내 고삐를 잡고 말을 직접 몰아보는 특전을 제공한다. ‘쫓쫓’, ‘위위’ 등 소연이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뿌요. 소연이가 단 한마디로 이 순간을 온전히 설명한다. “진짜 재미있어요!”



<취미의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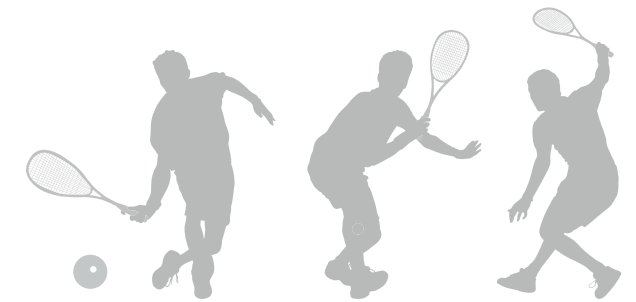
홍성교도소 교사 김종관

힐스쿼시클럽 대표 조형선



힘차게 스윙, 짜릿한 쾌감 스쿼시 원 포인트 레슨으로 실력 Up!

홍성교도소 교사 김종관 & 힐스쿼시클럽 대표 조형선



같은 열정으로 통하다

스쿼시에 '진심'인 이들이 만났다.
스쿼시 동호인으로 활동하는 김종관
교사와 베테랑 조형선 대표가 땀 흘리며
코트 위를 누볐다. 공통분모로 함께
소통하고, 원 포인트 레슨으로 실력을
업그레이드한 현장을 담았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스쿼시는 탄성을 지닌 고무공으로 경기를 하는 라켓 스포츠다. 테니스와 달리 중앙에 네트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사각 코트를 활용하는데, 벽에 공을 튀겨 되돌아온 공을 다시 방석이다. 스쿼시는 보는 것보다 직접 뛰었을 때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을 쫓다 보면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게 느껴지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거리에 있는 공을 칠 때 짜릿한 쾌감이 밀려든다. 6년 전, 처음 스쿼시에 입문한 홍성교도소 김종관 교사는 벽에 공을 팡팡 튀기는 타격 소리를 듣고 스쿼시에 매료됐다. 지역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스쿼시를 즐기는 중, <교정> 독자들에게 스쿼시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전문가에게 묻다'를 신청하게 됐다.

"라켓을 강하게 휘둘러 공을 치는 타격감과 공이 벽에 맞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로 스트레스가 절로 풀리는 기분이에요. 기본기를 갖추고 실전 게임을 하게 되면 두뇌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색다른 매력이라구요. 전문가에게 레슨도 받고 다양한 도움말도 얻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오늘 김종관 교사와 함께할 힐스쿼시클럽 조형선 대표는 선수 생활을 거쳐 현재 스쿼시장을 운영하는 전문가. 20년 전 스포츠 마니아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스쿼시를 처음 접한 후 꾸준히 스쿼시를 즐겨온 베테랑이다. 흔히 스쿼시를 두고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표현하는데, 조형선 대표 또한 이에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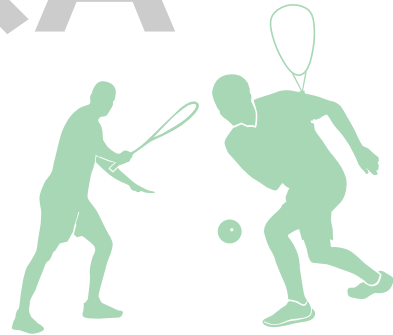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코트 안에서 어떤 각도로 공을 쳐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거든요. 공이 튕겨 되돌아오는 매 상황이 달라집니다. 짧은 순간에 적절한 길이와 방향을 결정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사각 코트 위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한 자세 교정 레슨을 이어가다가 하면 한바탕 땀 흘리며 게임을 즐겼다. 스쿼시를 주제로 한 대화 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김종관 교사 수준 편차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스쿼시를 즐길 때, 실력을 함께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형선 대표 우선 스쿼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이들과 함께 즐기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문자나 초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코트에 가상 구역을 만든 후, 숙련자는 한정된 구역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유리한 조건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숙련자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공을 컨트롤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샷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숙련자가 드라이브만 하는 등 핸드캡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입문자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쉽게 즐기고, 숙련자는 제한된 상황에서 실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 교사 스쿼시는 순간순간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중동(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이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물 찬 제비 같은 활동력도 중요한데요. 신중한 판단과 민첩한 움직임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조형선 대표 상대방과 경기할 경우,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 상대의 위치를 보면서 공간을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몸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의 진행 방향을 익히기 위해선 공간 지각 능력과 각도에 대한 이해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의 움직임, 공간, 기술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량도 필수죠. 민첩한 움직임을 위해 평소 스텝 연습을 하거나 특정 패턴 게임을 훈련한다면 경기 때 몸을 반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김종관 교사 향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스쿼시를 즐기고 싶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형선 대표 저 또한 아킬레스건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시는 중독성이 있어서 스쿼시를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에너지 소모가 크고 격렬한 운동인 만큼 평소 근력을 키워보세요. 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운동법으로 런지 동작을 하고, 스윙할 때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MINI INTERVIEW

김종관 교사

“그동안은 막연하게 운동을 했는데,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해 올바른 손목 스냅 사용법을 알게 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것을 참고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스쿼시를 즐기며 신나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MINI INTERVIEW

조형선 대표

“오랫동안 스쿼시를 하면서 기본자세를 탄탄히 잡으셨습니다. 스윙 방법에 살짝 변화만 줘도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쿼시에 진심인 분과 대화하면서 저 또한 열정을 되살리고, 재충전된 기분입니다.”

김종관 교사 스쿼시는 교정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운동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조형선 대표 테니스나 탁구 등 친숙한 운동과 달리 스쿼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스쿼시장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가 많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회관, 대학교 체육시설 등에서도 스쿼시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니 초보 강습을 받아보세요. 동호회 활동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쌓으며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입문자의 경우 실력자들이 많은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관 교사 대회에 참가해 제 실력을 검증하고 싶은데요. 2023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동호인 올림픽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는 기량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요?

조형선 대표 아시아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동호인들의 실력이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쿼시가 생활 스포츠로 정착한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이 세계적인 강호이긴 하지만, 동아시아권 안에서는 우리나라 동호인들의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동호인이 참가할 수 있는데,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승패를 떠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고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여
웅
렬

의정부교도소 교감



네이버 슈트 & 도트 넥타이

은은한 체크무늬가 단조롭지 않은 남색 정장, 신뢰를 주는 청량한 하늘색 셔츠에 도트 패턴 넥타이를 매어 무겁지 않게 연출했다. 세미 정장에 잘 어울리는 짙은 갈색 테슬로퍼를 신었다.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다

의정부교도소 교감 염웅렬

편안한 일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가끔은 낯선 자극이 필요한 법. 여행이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도 좋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만큼 좋은 신선한 자극은 없을 터. 의정부교도소 염웅렬 교감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스타일 변신에 도전했다. 평생 기억할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그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

부쩍 봄의 따뜻한 기운이 만연해진 요즘, 몇 년간 지속하며 우리 일상을 빼앗아간 코로나19가 야속하기만 하다. 다가오는 봄에는 조금이라도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봄 계획을 세울 시점, 의정부교도소 염웅렬 교감이 평소와는 다른 봄을 준비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후배 직원의 추천으로 용기가 생겨 참여 신청을 했죠. 제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느 날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고는 잠시 당황하기도 했죠. 조금은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모든 꽃이 봄에만 피지 않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이 있듯이 이번 도전이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염웅렬 교감이 도전할 스타일은 따뜻한 날씨에 떠나는 소풍과 데이트에 잘 어울리는 밝은 캐주얼 룩 그리고 살짝 가벼운 느낌의 정장이다. 캐주얼과 정장, 보기에는 너무 다른 두 가지의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많이 다녀요,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멋지게 입고 함께 놀러 가고 싶어서요. 사진 촬영도 한다가에 가족들 앞에서 모델처럼 연습도 하고 왔어요. (웃음) 연습 때는 괜찮았는데, 자연스럽게 자세가 나옴지 걱정되네요. 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설교도 하는데 그때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캐주얼 룩을 입어보기로 한 염웅렬 교감. 밝은 색상의 옷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봄꽃처럼 화사한 분홍색 데님 재킷과 청바지에도 도전했다.



“이번 도전이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바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분홍색 데님 재킷 & 청바지

경쾌한 분홍색 데님 재킷에 흰 티셔츠와 청바지, 스니커즈로 완성한 초봄 나들이 룩. 가볍게 떠나는 나들이지만, 조금 과감한 스타일에 도전한다면 더 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다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가족과 나들이를 즐기지만, 평일에는 누구보다 긍정적이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업무 집중한다는 염웅렬 교감. 현재 보안과에서 근무하면서도 수용자 상담과 교육 관련 업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수용자들을 보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 수용된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은 교정공무원이라는 역할에 더 고민이 없지만 잠시 교정을 떠난 적도 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다시 교정공무원이었다. 신학을 공부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은 것이다.

“처음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게 1990년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정을 뒤로한 채 신학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아내도 만났죠.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중에 제가 교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저를 다시 교정으로 이끌었어요. 2007년에 다시 교정으로 돌아왔죠. 믿음은 제가 교정공무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 설교도 한다는 염웅렬 교감은 정장 스타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소에도 정장은 자주 입어 더 어울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교회에 갈 때는 차려입고 가는 편이에요. 멋지고 깔끔하게 입은 제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고요. 셔츠나 넥타이에도 관심이 많죠. 오늘은 조금 가벼운 스타일의 정장을 입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특별한 순간이 평생의 추억으로

색다른 변신에 도전해본 색다른 시간. 염웅렬 교감은 변신한 멋진 모습을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가족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존재다.

“아내와 산책도 많이 다니고요, 자녀들과는 예쁜 카페에도 자주 가요. 평일에는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니 대화할 시간이 적잖아요. 가족과 함께 카페에 가면 차에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 꽃이 폼니다. 최근에는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걸로도 종일 대화를 나눴어요. (웃음) 제 성향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삶과 일상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보고 듣는다. 많은 이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염웅렬 교감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다. 오늘의 스타일 변신 역시 그의 삶에 오래 기억될 순간이 될 것이다.

“사진첩을 보면 우리 모습이 시간에 따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자연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먼 훗날에는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SNS를 보면 ‘인생샷’이라고 해서 멋진 사진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도 인생샷 하나는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것이
궁금
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느덧 인생 후반전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성경과 상담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아직도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있어요. 깨닫는 것도 많고요. 늘 추억을 되새김질하기보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도, 꽃은 피어난다

글 안동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이문경

대체복무, 그리고 원예실과의 첫 만남

대전교육센터에서의 3주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센터에 계신 복무관님들과 다른 강사분들께서 매일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실무 교육, 안전 교육, 보안 교육 등 필요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셨고, 37명의 믿음직한 동기들도 만나게 됐으며, 대전교도소를 견학할 소중한 기회도 있었다. 그렇게 교육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배치받은 곳은 안동교도소였다.

버스를 타고 안동교도소 정문에 오니 '대체복무요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의 플래카드가 보였고, 그제서야 정말 우리가 대체복무를 시작했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이후 2주간 신규 요원으로써 적응 기간을 마친 후에 나는 내가 자원한 대로 원예 부서에 배치됐다. 들어오기 전 원래 플랜테리아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집에서 나름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키웠었지만, 원예실에 와서 보니 그와는 스케일이 다른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편에 있는 온실에는 미처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수십 종의 수목들과 화초들, 난이나 선인장 등이 빼곡하게 정렬돼 있었고, 오른편 비닐하우스에는 100개가 넘는 국화들이 화분에 앉아 푸르른 잎들을 뽐내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임님과 이전에 관리하던 수용자분들로부터 물주기, 순따기, 분갈이, 가지치기, 농약 치는 법 등 중요한 내용들을 속성으로 배웠으나, 역시 초보자였던 나와 동료 요원은 걱정에도 눈앞이 캄캄

해졌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우리는 이 식물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하는 열정을 불태우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학구열이 넘치던 동료 원예 요원이 수목 관리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구매해 함께 매일 사무실에서 읽었다. 일과 시간 종료 후에도 역시 인터넷으로 삼목, 가지치기 등 기본 기술부터 해서 갖가지 품종에 대한 설명과 특징, 키우는 법을 정독해 우리만의 원예 도감 또한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 부서 사무실에서 키우시다가 상태가 안 좋아진 식물들을 가져다주시면 우리는 각 사무실의 환경에 걸맞은 다른 화초들을 추천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왔고, 가져오신 식물들은 다시 회복해 좀 더 특성에 걸맞은 장소로 배치될 수 있게끔 정성을 다해 키웠다. 이후 여러 부서의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종종 오셔서 우리가 정성 들여 키운 잘 자란 식물들을 간택해 가실 때는 마치 잘 키운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시원스럽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해당 부서 사무실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괜히 뿌듯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한다.

그 해, 우리 여름은

작년 여름 원예 일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들이라면 역시 교도소 내부의 수목 관리였다. 교도소 곳곳에는 그간의 세월을 증명하듯 수많은 담쟁이덩굴, 잡초, 벌집 등 불청객들이 잔뜩 포진해 있었고, 우

리 두 명은 매일 곡괭이, 호미, 전지가위, 삽 등의 생소한 도구들을 들고 종횡무진 하며 녀석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7, 8월의 한여름, 매일 오전 보안과 앞 정문에 나가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틈 사이사이에 자란 잡초들을 끝없이 캐내다 보면 정말 질릴 때도 있었다. 심지어 뿌리째 뽑아내도, 비만 오면 어느새 무럭무럭 다시 자라나는 녀석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덕분에 왜 그토록 많은 문인들이 잡초의 생명력을 칭찬했는지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안동교도소 직원 식당 창문 너머에는 죽은 장미 넝쿨들과 오래된 조경수들이 빼곡하게 자라 창가를 덮어서 밝은 낮에도 저녁처럼 캄캄해 보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며칠간 우리가 전지가위와 삽을 들고 와서 모두 제거하자 조리사님들과 영양사님의 표정도 마치 화사해진 창가만큼 무척 환해지셨던 기억이 난다. 비록 벌들 때문에 살충제를 들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일하긴 했지만, 한층 더 밝아진 풍경과 여사님들의 얼굴을 보니 이 또한 원예 요원으로써 어깨가 으쓱 해졌다. 수고했다고 가져다주신 아이스크림은 덤이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여름에는 우비를 입고 20L의 농약을 끙끙대며 뿌리곤 했고, 매일같이 운동장 안 밖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 수형에 맞춰 전정 작업을 하곤 했다. 가을에는 교도소 복도나 외부의 민원실, 총무과 등에 아름답게 꽃을 피운 수십 개의 소국과 대국 등을 배치 및 관리하며 칭찬도 받고, 허브나 공기정화 식물 등을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켜 대체복무 생활관에 배치하고 꾸미기도 했다. 되돌아보니 참 바쁘게 보냈던 것 같다.

교도소 담장 너머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거의 사계절을 한 장소에서 매일 지내다 보니 밖에서는 놓치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는 높은 회색 주벽들 사이로 아름다운 노을빛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매일 같이 다른 빛깔의 하늘

과 구름을 보다 보면, '아, 교도소 안도 밖과 똑같구나. 해가 뜨고 지며,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덕에 꽃도 아름답게 피고 벌이 그 꿀을 따는 그런 곳 말이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정시설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서 왜곡되기 쉽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정시설은 언제나 폭력과 부조리로 점철돼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하며 느낀 교정시설의 느낌은 정말 다르다. 사회에서 저지른 죄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수용자들, 그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때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교도관님들, 그리고 교도소라는 교정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하는 직원들 등으로 이뤄진 사회의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의 미디어에서는 교도관과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떻게 공익에 성실히 기여하는지 보이지 않을까?

교도소 내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동료 대체복무요원들도 자주 마주친다. 그들을 보면 역시나 항상 웃는 얼굴로 생기 있게 말은 일들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용자의 신분이 아닌 대체복무요원으로써 교도소 내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직원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 늘 뿌듯하고 기쁘다. 특히 많은 직원분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마다 더욱 그 점을 실감한다. 동료들 모두 대체복무를 오랫동안 기다린 친구들이라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있어온 만큼, 그들 모두의 특기와 재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더 많은 지역과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위해 열릴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겨우내 잠들어 있다가도 봄이 오면 다시 힘차게 기지개를 뻗으며 앞을 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처럼 대체복무요원들의 열정과 재능이 대한민국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활짝 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대체복무요원들, 파이팅이다!

서로에게 응원이 돼 주는 존재가 되자

글 홍성교도소 교위 정우성

우리 소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발생했다. 출근하는 동안 꿈인지 생시인지 어이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난감했다. 다만 교도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눈에 비치는 광경은 이수라장이었다. 그야말로 전쟁터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저기에서 지원 인원과 물품을 찾느라 고향을 치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랄까? 보안과에 들어서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대구교도소로 파견을 가야 하니 간단한 생필품만 챙기고 대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소가 정리가 되는 대로 교대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모두가 하나 돼 극복해야 하기에 바로 준비했고, 그렇게 약 4주간의 대구교도소 파견근무가 시작됐다.

신축 대구교도소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경이었다. 다행히 대구교도소에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직원분들이 다수 지원해 주셔서 신속하게 정리됐다. 지금 생각해도 너

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가 교도관이라는 소속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뿌듯함은 잠시 일뿐! 바로 야근을 시작해야 하는데,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했다. 게다가 2부제 근무체제는 정신과 육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레벨D 방호복 상태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벗을 때면, 차가운 겨울바람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근무복을 바늘같이 뚫고 지나가 온몸을 찌른다. 비번 날 자고 나면 또다시 근무이고, 그때마다 축축하게 젖을 옷을 떠올리며 다시 입으려니 마음이 착잡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근무는 버티면 그만이다. 그러나 가족과의 생이별은 극복하기 힘들었다. 아내에게 본소와 대구교도소 상황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영상통화를 했고, 늦은 밤이면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나에게 아내의 응원은 큰 힘이 됐다. 그리고 본소 확진자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코로나19에 노출돼 오염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구에서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보라는 말까지 해줬다.

특히 감동받은 이야기는 ‘희기동소(喜忌同所)’라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한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부에게 드넓은 바다는 보물 찾기와 같다. 배 한 대와 튼튼한 그물만 있으면 바다는 그야말로 기회이자 축복의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때로는 암초에 부딪치고, 때로는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많은 어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부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즐거움의 장소인가? 아니면 괴로움의 장소인가? 단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어부에게 바다란 즐거움과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로움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구에서 나쁜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대구교도소에서 첫 1~2주는 수용자도 직원도 생존분능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인지 그러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3주가 접어들면서 수용자의 반발은 거세져 갔다. 자유의 억압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임을 확연하게 느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거실 밖으로 나와 움직이고 싶어 했다. 거듭되는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상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레벨D 방호복은 온몸을 쪼이며 짓누르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어떻게든 잠시라도 방호복을 벗고 가볍게 있고 싶어 했다. 코로나19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는 분들은 어떻게 버텼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코로나 시대 간호사분들을 포함해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용자의 요구사항은 늘어만 갔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격려뿐이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다 같이 견뎌 극복하자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PCR 검사까지 거부하는 수용자가 나타났다. 아

무튼 하루하루가 길고 힘들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반지에 적혀있는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도 견디다 보니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새해도 지나가고, 그렇게 약 4주가량이 흘러 본소로 무사히 복귀하게 됐다.

복귀하고 일주일 정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소가 안정화됐다. 그리고 첫 작업장 근무를 들어갔는데 수용자 한 명이 다가와 대구교도소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우리는 TV 보며 도시락 먹고 자고, 또 먹고 자며 버티면 됐지만 주임님들은 방호복 입고 힘들게 근무하셨는데, 그 덕분에 안전하게 지냈고 무사히 복귀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이 들었다. 당시 나는 수용자들에게 격려만 해줬을 뿐인데... 이들도 나에게 이런 응원을 해 주는구나 생각하니 나뻘 뽀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건넨 ‘희기동소(喜忌同所)’라는 말이 떠올랐다. 교도관에게 교도소는 어부의 바다와 같은 곳이었다. 우리는 바다를 원망만 하고 산 것이 아닐까? 잘 찾아보면 분명 기쁨의 시간도 존재할 것 같은데... 어부가 바다를 더 사랑함으로써 바다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만선의 기쁨을 찾듯이, 우리도 수용자를 더 이해함으로써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을 느꼈다. 어부는 바다를 응원하고 바다는 어부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마치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응원하고, 수용자는 안전한 수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교도관의 존재에 감사함으로써 응원하는 관계가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직장이 꽃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대구교도소 신축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2022년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친 이 순간, 서로에게 응원이 돼 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서
경
석개
그
맨

삶은 성실하게 도전은 꾸준하게

한 시절을 풍미한 스타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존재감이 있다. 서울대 출신 개그맨으로서 데뷔 초부터 이목이 쏠렸던 개그맨 서경석. 대중은 명문대생 개그맨을 향한 호기심을 넘어 한 사람의 스타로서 그를 좋아하고 응원했다. 그러나 그는 안다. 화려한 순간만큼이나 인생의 애환이 주는 결실도 있음을. 그래서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일상을 일구어간다.

글 정리희 사진 홍승진

합격을 노래하던 연예인, 직접 나선 도전

●

누가 알았을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응원하던 연예인이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리라고.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대 출신 개그맨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다고 하니 호기심이 일었다. 그의 호언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어느새 시험 응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됐다. 서울대 출신이니 당연히 합격하리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그는 합격을 목표로 삼지 않고 도전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그래도 일단 책을 펼쳤으니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험 난이도가 예상과 다르게 무척 높았습니다. 공부만 해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본업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려니 더 쉽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1년여를 더 공부한 후 다시 도전한 2차 시험. 기적처럼 기준을 충족하는 절묘한 점수를 받았고, 그렇게 그의 이름 석 자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이후로 얼마간은 축하 인사를 받느라 바빴다. 이미 개그맨으로서 일가를 이룬 그가 이제 와 자격증 하나를 따다고 해서 직업을 바꿀 리는 없을 터. 그러나 오랜 기간 한 기업의 모델로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던 그의 도전은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차 시험을 얼마 앞두고는 방송만 마치면 책을 펼쳐 들고 입시생처럼 공부했다는 서경석. 쉽지 않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남다른 성취감을 줬지만, 이 때문에 한동안 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뭇모르고 시험에 도전해보니 불필요하게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방법을 유튜브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인생을 일구는 발

● 1990년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그의 화려했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실제로 그는 1993년 데뷔 후 그해 MBC 코미디대상에 서 신인상을 받았고, 1996년 우수상, 1997년 최우수상, 1999년 대상을 받는 등 개그맨으로서 승승장구했다. 처음부터 연에게 에서 큰 성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멋모르던 시절에 방송 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던 MBC 코 미디언 모집 공고. 그때 지원서를 냈던 결정이 이후 그의 진로를 완전히 뒤바꿨다.

“이전에도 진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처럼 심각하게 생각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집에서는 외무고시를 보기 바라셨는데, 저 는 입시를 두 번 치러서 그런지 당시에는 어려운 책을 다시 펼 쳐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불어를 좋아해서 불문과에 갔으니 불문학자가 돼볼까, 어릴 적 아버지 소원이었던 사업가가 돼볼 까 등 여러 갈래로 많이 고민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MBC에 서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죠. 한 번도 안 가 본 방송국 구경도 하고 머리도 식힐 겸,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 고 오자는 마음으로 응시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결정이 제 인생에 큰 터닝포인트가 됐죠.”

합격하고도 방송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자신도 알지 못했지 만, 운명의 방향은 그를 계속 방송가에 머무르게 했다. 김영희 PD의 조언으로 개그맨 이윤석과 콤비를 이루면서 단숨에 대 중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비행기는 높은 곳으로만 날지 않았다. 올 라갈 때가 있으면 고도를 낮추어 날아가야 할 때도 있는 법.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방송 제작 현장은 예전과는 사뭇 분위 기가 달랐다. 그즈음 그가 세운 복귀 전략은 다른 분야에 도전 하는 것. 그렇게 드라마에서 연기를 시작했으나, 연기자로서 안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경험이 연기력을 키우 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회고한다.

“이전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하는 콩트 연기가 전부였는 데, 일일 드라마에서 기라성 같은 연기자들과 연기를 하면서 저 역시 나름대로 연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이어 갔다. 2014년에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며 다시금 대중에게 자신을 알렸다. 당시 촬영하며 생긴 상처는 지금도 그의 몸에 훈장처럼 남아있다.

“크든 작든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제 능력 안에서는 최선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모두에게 일상의 응원가를 전하며

● 7년째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MBC 표준FM <여성시대>는 매 일매일 그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전국에서 날아온 청취자들 의 사연은 별다른 침묵 없이 읽어도 감동이 느껴질 만큼 진솔함이 눌러 담겼다.

“사연의 분량이 너무 길면 조금 잘라내지만, 일부러 예쁘게 꾸며서 편집하 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한 감동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방송 직전까지 사연을 먼저 펼쳐보지 않아요. 청취자와 같은 감정 선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전해지는 감동이 있거든요.”

낮은 모르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청취자들과 울고 웃어온 시간 덕분에. 그는 각자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깊이 이해한 다. 교정공무원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에도 남모를 고충을 살핀 흔적이 역 력하다.

“교정공무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묵묵하게 하 는 분들이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직 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 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를 시청자들이 끝이끝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정공무원의 존재가 알려지는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권했다. 그 리고 그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오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 로 발전하고 싶다는 다짐을 덧붙인다.

“매번 탄탄대로를 걷지는 않았지만 크든 작든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 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현재 진행하는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 개인 채널도 정말 재미있게 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포 기하지 않고 제 능력 안에서는 최선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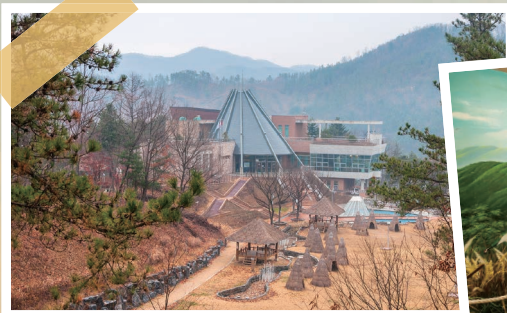
32년

문학기행 명소 봄날의 ‘책’ 산책



그들은 있지만 없고, 없지만 늘 있다. <토지> 속 ‘최서희’나 <동백꽃> 속 ‘점순이’처럼 상상으로 존재하는 문학 속 인물들 얘기다. 책에 진심인 그대라면 이 봄, ‘책 속의 그들’과 나란히 발 맞춰 걸을 수 있는 공간들로 떠나보자. 봄별 찬란한 꽃들 툭툭 터지는 날엔 ‘점순이’가 말을 걸고, 봄비 쏟아져 연둣빛 새순 적시는 날엔 ‘소년’이 맘을 두드릴 테다. 책 속 인물들이 말을 거는 공간, 그 중에서도 봄풀 무성한 산책 공간을 품어 사랑살랑 걷기 좋은 문학기행지 세 곳을 골라 모았다.

글·사진 이시목 여행 작가 사진제공 소나기마을



기다리세요? 봄날의 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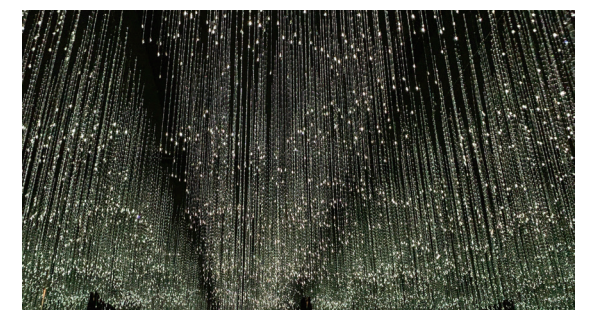
경기 양평 소나기마을 & 황순원문학관

소나기마을은 소설가 황순원(1915~2000)의 문학테마파크다. 그중에서도 소설 <소나기>의 감성으로 채색된 공간이다. 재현의 키워드는 ‘수숫단’과 ‘징검다리’ 그리고 ‘소나기’다. 먼저 메인 공간인 황순원문학관부터 둘러보자. 소설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수숫단 모양의 문학관은 황순원의 문학세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소나기>의 배경이었던 징검다리 등도 최근 개관한 영상체험관에 실감나게 담겼다. 들어서는 순간 갈대가 흔들리고 물이 흐르고, 관람객의 발걸음에 따라 물의 파장이 인다. 별빛 같은 소나기도 타닥타닥 내리고 폴폴 나비도 난다. IT 기술과 결합해 빛으로 쏟아져 내리는 문학이 경이롭다.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건 역시 비, ‘소나기’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랏빛 먹장구름이 내려’ 앉지도 않았는데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뽕~’하고 쏟아지는 마법 같은 순간, 그 환희가 소나기마을엔 있다. 비록 스크린클러-비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할 빛깔의 감성 소나기이니 맘껏 즐겨 보자. 그러다 상념이 깊어지면, 잠시 수숫단에 기대어 쉬거나 광장을 둘러싼 야산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 보면 될 일이다.

두물머리 '물멍'도 필수



“양수리로 오시게/그까짓 사는 일 한 점 이슬 명예나 지워 다 버리고/그냥 맨 몸으로 오시게(종락)/남한강과 북한강이 뜨겁게 속살 섞는 두물머리로(하락)”(박문제의 시 <양수리로 오시게> 중에서) 소나기마을을 오가는 길엔 두물머리에 잠시 들러 산책을 즐겨보면 어떨까. 비 내려 안개 몰려왔다 밀려나는 날이라면. 오래 앉아 강물과 몸을 섞는 빗줄기를 감상해도 좋다.

거기, 별 잘 드는 들판 언저리
경남 하동 최참판댁 & 박경리문학관

봄이면 이 땅 어디보다 환해지는 곳이다. 별 또한 푸지게 내려, 온
들이 봄 안에 쑥 담긴 듯 대하·산수유·개나리 줄지어 핀다. 연둣빛
새순이며 보리도 오종중 돋았고, 키 작은 봄풀도 수북하다. 이곳이
바로 박경리(1926~2008)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평사리
다. 평사리는 ‘평사낙안(平沙落雁)’이란 별칭으로 불릴 만큼 경치가
좋은 곳. 특히 푸른 들(약양벌)과 푸른 강(섬진강)을 품고 앉아 사
철 그 빛깔이 곱다.

최참판댁은 최치수의 헛기침 소리가 들릴 듯 생생한 소설 속 무대
다. 실재하지 않는 문학 속 허구의 공간이지만 실재인 듯 존재한다.
얼마나 소소하고 세세한 부분에게까지 신경을 써 재현했는지, 소설 중
반부에 나오는 문장(‘서희는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하나에까
지 반응해 해당화를 심었다. 어쩌면 이런 정성과 노력 덕분일 터. 최
참판댁은 어느새 소설 속 최참판댁 자체로 여겨질 만큼 익숙하다.
최참판댁 위, 가장 높은 자리엔 박경리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문학관도 있다. 하지만 굳이 뜰 앞에 오래 선다. 어깨동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만 작가의 동상 앞에 서면 약양, 너른 벌이 한
눈에 조망되는 것. 시간이 여유롭다면, 그 들판을 이어 이어 흐르는
논둑길(토지길 1코스)도 걸어볼 일이다. 무른 논둑 밟히는 느낌이
봄을 받을 때만큼이나 설레 좋을 테다.



독특 하르르, 노랗게 봄 터지는
강원 춘천 실레마을 & 김유정문학촌

소설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은 봄과 참 잘 어울린다. 햇살처럼
노란 빛깔의 개동백(생강나무)이 꽃망울 맺힐 때(1908년 2월 12일)
에 태어났고, 소설 <봄봄>과 <동백꽃> 같은 봄을 연상케 하는
소설을 여러 편 남긴 까닭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오래, 무작정,
김유정의 계절을 ‘봄’이라 느끼는 이유는, 29세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의 마지막 계절이 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실레마을을
자주 찾아 거닌다. 실레마을은 김유정의 고향이자, <동백꽃> <봄
봄> <만무방> 등 실레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 12편의 산실
이다. 공간뿐 아니라 등장인물까지 실재한 경우가 많아, 국내 문학
기행지 어디보다 허구와 현실의 싱크로율이 높다. 그만큼 둘러볼
곳은 많고 둘러볼 공간도 넓다.
탐방 코스는 크게 두 가지. 생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촌에서는 부자
로 태어났으나 궁핍한 채로 죽은 그의 삶과, 열렬했으나 홀로 갇혔
던 그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마을에서는 소설의 실제 무대를 거닐
어볼 수 있다. 이중 생가와 김유정이야기길, 김유정역은 반드시 들
러보자. ‘ㅁ’자형의 초가집인 그의 생가에서는 소설의 주요 장면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을, 이야기집에서는 김유정의 삶과 문학세계를,
김유정역에서는 문학과 예술로 덧칠된 빈티지한 역의 감성을 제대
로 만끽할 수 있다.

뷰 맛집 '스타웨이 하동'



약양벌 푸른 들녘을 좀 더 넉넉하게 품고 싶다면, 스타웨
이 하동으로 길을 잡자. 최참판댁에서 불과 1.9km 거리
에 있는 스타웨이 하동은 별 모양의 스카이워크와 지리
산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공간
이다. 여기에 섬진강 뷰의 카페까지 갖춰 하동을 대표하
는 인증샷 명소로 꼽힌다.

춘천에서 빠지면 서운한 닭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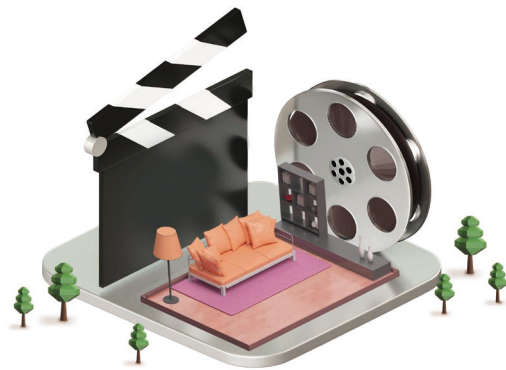


‘알을 내고 폐품이 되다시피 한 닭들이 싼값에 공급되면
서 골목에 닭갈비라는 술안주들이 생겨났다.’(한수산의
<안개시정거리> 중에서) 춘천을 대표하는 별미는 닭갈비
다. 소설에까지 등장할 정도다. 맛볼 수 있는 메뉴는 숯불
과 철판 두 가지. 철판닭갈비는 닭갈비를 먹은 후 양념에
비벼 먹는 볶음밥이 맛있고, 숯불닭갈비는 참숯에 훈연된
맛이 일품이다. 실레마을에서는 모두 맛볼 수 있다.

잘 나가는 OTT 드라마 이것이 다르다 기존 드라마의 틀을 깨다

최근 들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들이 강세다.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한국드라마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소개되며 신드롬을 만들기도 했다. 도대체 OTT 드라마들은 기존 드라마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사진 제공 Netflix



넷플릭스가 연 한국 드라마의 신세계

대중문화 콘텐츠는 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KBS, MBC가 이끌던 지상파 시절에 가족드라마가 많이 만들어 지고 또 인기도 끌었던 건 그 플랫폼과 관련이 있다. 매스미디어로서 지상파가 국가 홍보나 공보의 역할을 했던 그 시기, 우리가 콘텐츠를 접하는 풍경은 대체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TV를 보는 모습이었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가 주도했던 가족주의 시대와 지상파 플랫폼은 같은 시대를 풍미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PC통신을 거쳐 인터넷이 생겨나 2000년대를 넘어서 이른바 디지털,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족드라마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KBS 주말드라마'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건 사회가 가족주의 시대에서 점점 개인주의 시대로 이행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영향을 미쳤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TV로 한 프로그램을 함께 보기보다는, 각자 자기 방에서 자신의 개인미디어(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등)로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찾아보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 개인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콘텐츠는 좀 더 개인의 삶에 맞춰진 것들이다. 드라마로 치면 '장르물'처럼 가정 대신 일터가, 가족 대신 직장 동료들을 다루는 콘텐츠가 요구된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OTT다. 개인화된 서비스로 초기화면이 구독자의 취향에 맞게 제공되는 플랫폼은 이제 지상파, 케이블, 종편으로 불리던 플랫폼을 레거시 미디어로 만들면서 이 시대의 주력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넷플릭스는 이 과정에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지만, 이미 해외의 장르들까지 경험하며 요구하기 시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예를 들어 김은희 작가가 쓴 <킹덤> 같은 드라마는 기존 미디어들이 제작 편성에 난색을 보였던 작품이지만, 넷플릭스는 단 한 줄의 설명만으로 제작을 확정했다. 그것은 '조선시대 좀비물'이라는 설명이다. 좀비 장르는 신체가 절단되기도 하는 등 수위 높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아가 마니아들만 소비한다는 편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드라마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플랫폼인데다 <워킹메이스트> 같은 좀비물 마니아를 구독자로 확보하고 있어 <킹덤>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조선시대'라는 차별성이 분명한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좀비들과의 사투라니! 한국드라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면서 신세계를 열었다.



어라, 외국인들도 난리네?

넷플릭스는 전략적으로 그간 한국의 플랫폼들이 시도하지 못한 소재나 장르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인간수업> 같은 드라마는 청소년 성매매를 소재로 했는데, 그간 지상파 등에서 청소년을 소재로 하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던 교육문제, 청춘멜로 같은 접근을 훌쩍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사실상 청소년 성매매가 존재하고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외면해왔던 것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스위트홈> 역시 한국드라마가 시도하지 않았던 크리처물이라는 장르를 가져와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D.P.>는 탈영병을 추적하는 임무를 가진 헌병 이야기로 역시 한국드라마가 다루지 않았던 군대 폭력에 대한 소재를 다뤄 화제가 됐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본격 장르물에 한국의 색깔을 넣은 드라마가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는 점이다.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 속 게임을 따라 할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고,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작품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호평과 인기를 누렸다. 그간 지상파 시대에 가족드라마, 사극, 멜로드라마가 주로 만들어졌던 것에서 이제 OTT라는 플랫폼은 본격 장르물을 쏟아내며 이른바 'K드라마'의 외연을 확장했다. 여전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멜로드라마가 OTT를 타고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장르가 인기를 구가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한국적인 취향 공동체의 탄생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연 OTT 시대는 이제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같은 토종 OTT가 대거 진입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 같은 글로벌 OTT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춘추전국시대를 열고 있다. 기존 지상파 시절 TV를 통해 한 방향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던 시절에는 드라마들도 '보편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남녀노소가 모두 한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소재와 표현 수위를 담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독 개념으로 구독자의 취향을 읽어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안하는 OTT의 플랫폼 특성은 '보편성'보다는 여러 개개인의 취향대로 골라볼 수 있는 '다양성'이 중요해졌다. 좀비물 같은 한때는 일부 마니아들의 장르로 치부되던 것들이 OTT에서는 '취향이 확실한' 콘텐츠가 되는 이유다. 마니아라는 개념도 한 국가 내에서는 소수지만, 글로벌로 보면 그 저변이 넓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취향이 확실한 이들은 저 스스로 입소문을 내며 타인들도 소비에 끌어들이기 마련이었다.

OTT 시대에는 그래서 국가, 언어, 나이, 성별 같은 것들이 콘텐츠 소비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남미의 60대 여성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게임>으로 경험했듯이 OTT 드라마들은 그 비슷한 취향을 통해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과거와는 새로운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드라마들이 국가를 뛰어넘는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OTT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봄 바다의 보물(貝物)

바지락

귀금속 등 보물을 패물(佩物)이라 한다. 우리말 보배 역시 한자어 보패(寶貝)에서 나왔다.

조개를 뜻하는 한자어 패(貝)는 돈이나 재물을 뜻한다. 세계 곳곳에서 패총이 발견될 정도로 조개는 초기 인류에게 생명을 유지해 준 값진 식량이었다.

글. 사진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봄 오는 3월, 가장 값진 조개

알맹이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껍데기는 돈으로도 쓰였다. 한자에 '조개 패(貝)'가 들어가는 자는 재물(財), 선물(贈), 밀친(資), 샅(費), 보물(寶) 등 돈과 관련된 것이 많다. 금이나 주식도 그렇듯 재화는 가치가 변한다. 조개는 맛이 드는 지금부터 가장 값지다.

봄 바지락을 위시해 백합, 개조개(대합) 등은 물론 귀한 새조개, 갈미조개(개량조개) 모두 3월에 즐기기 좋다. 굴은 5월까지 맛볼 수 있다. 시원하고 감칠맛을 낼 뿐 아니라 살도 단단하고 탱글탱글하다. 만춘(晩春) 산란기에 들면 독성을 품을 뿐 아니라 씹는 맛도 덜하다.

밀 국물로 제격인 국민 조개, 바지락

삶아도 구워도 맛 좋은 조개는 특유의 풍미가 진해서 국물을 내기에 좋다. 국과 찌개를 즐기는 습식(濕食)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선 조갯국을 많이 끓인다. 특히 갯벌에서 잡기 좋은 바지락을 많이 쓴다. 시원한 국물 맛이 식사나 해장으로 제격이라 바지락으로 밀 국물을 내는 집이 많다. 괜히 바지락을 국민 조개라 하는 게 아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바지락은 값도 싸고 맛도 좋지만 작다는 단점이 있다. 씨알이 잘아서 까먹기는 귀찮지만 국물이 시원하고 감칠맛이 제대로 들어 많은 음식에 사용된다. 칼국수니 수제비, 짬뽕 등에 밀 국물을 제공한다.

요모조모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바지락은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주로 난다. 인천 앞바다부터 안산 화성 등 경기도권부터 충남 서해안 전역에선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주로 끓여먹는다. 해감을 끝낸 바지락을 한가득 넣고 국물을 뺀 다음 반죽을 밀어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자체가 조미료 이상 감칠맛을 내니 애호박 등 푸성귀나 송송 썰어 넣고 한소끔 끓여 내면 완성된다. 바지락에서 나온 국물은 그 자체로 시원하다. 본래가 바닷물을 머금어 짭조름하니 간도 맞아떨어진다.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사용

요즘부터 잡히는 바지락은 씹는 맛이 좋다. 채첩보다 좀 큰 크기라지만 알맹이도 탱글하다. 이런 경우엔 알맹이를 빼내 자잘하게 다져 죽을 쑼거나 그 자체를 볶아서 먹기도 한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봄 미나리와 함께 무쳐

먹어도 좋다. 전북 군산과 부안 등지에선 바지락 죽을 많이 해 먹는다. 속살을 다져 참기름에 볶다가 밥을 넣고 문근한 불로 한참을 쭈어내면 쫄깃한 바지락살이 가득 든 맛깔나는 죽이 된다. 다진 채소를 넣으면 색깔도 모양새도 고우니 식욕이 절로 살아난다. 고소한 바지락죽 한 그릇이 전북이나 백합 부럽지 않은 감칠맛을 낸다.

남도에선 초무침을 많이 먹는다. 전남 고흥과 장흥 등 바지락 산지에선 미나리, 쑥갓, 양배추 등을 채 썰고 난 후 삶은 바지락을 부어 넣고 막걸리 식초와 매콤한 고춧가루, 설탕에 쓱쓱 버무려 초무침으로 즐긴다. 초무침을 집어먹고 나면 밥을 비벼 비빔밥으로 마무리한다.

사철 즐기기로는 된장국부터 짬뽕이나 우동 같은 국물 요리가 제격이다. 몇 개만 툭툭 던져 넣어도 뽀얀 국물이 우러난다. 화학조미료 대용이다. 바지락에 함유한 아미노산 성분도 글루탐산, 베타민 등 조미료의 주요성분과 같다. 된장에도 콩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많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 된장찌개 맛이 몇 배나 시원해진 다. 감칠맛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셈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애용하는 바지락

우리와 같은 바다를 쓰는 중국 산둥 요리에도 바지락을 많이 쓴다. 바지락 볶음(爆炒花甲)이 있다. 매콤한 고추 기름에 두반장을 넣고 껍질째 들들 볶는 요리다. 시원한 바지락의 맛이 매콤한 기름에 녹아들어 감칠맛 진한 볶음요리가 된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하다 껍질만 툭툭 뺀내면 쫄깃한 조개 볶음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바지락을 쓰기로는 봉골레 파스타도 빼놓을 수 없다. 백합이나 모시조개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바지락도 상관 없다. 봉골레는 그저 조개(vongole)란 뜻이다. 바지락과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 맛을 내면 싱그러운 조개 향이 두루 배어 든 봉골레 스파게티가 된다. 다만 좀 큰 바지락을 넣어야 보기가 먹기에 좋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해감 시켜놓은 바지락을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라면 끓일 때 넣어도 맛있다. 찬물일 때 몇 개만 넣어둬도 분말수프와 결합해 순식간에 맛이 살아난다. 몸뚱이는 작지만 바지락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는 식탁의 보배다.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①

목차

I. 서론

II. 국제사회의 교정시설 감염질환 관련 준칙

1.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상 규정
2. WHO의 교정시설 COVID-19 관련 규정
3. 소결

III. 미국 교정시설 COVID-19 대응 실태

1. 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2. COVID-19 백신정책

IV. 미국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

1. 극단적인 구금처우와 과밀 수용: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작동
2. 형사사법정책과 보건정책의 부조화 문제
3. 교정직원과 수용자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의 문제
4. 보건의료지침의 비준수와 비체계적인 대응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히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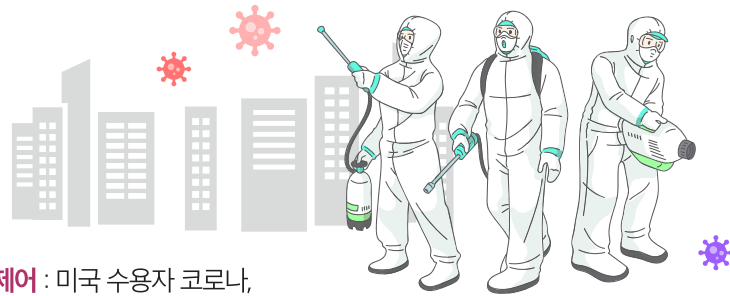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kmhuh@kmu.ac.kr)

• 접수일(2021. 11. 20.), 심사일(2021. 12. 16.),
수정일(2021. 12. 17.), 게재확정일(2021. 12. 28.)

국문 요약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 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 미국 수용자 코로나,
미국 교도소 과밀화, 교정시설 코로나,
교도소 코로나, 미국 수용자 집단감염

I. 서론

2019년 말부터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1년 말인 현재에도 다양한 변이현상을 보이며 지구촌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전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용자 50여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Fair & Jacobson, 2021).¹⁾

한국의 일부 교정시설에서도 1200여 명의 COVID-19 감염수용자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동부구치소 수용자 1,126명이 감염돼 단일 교정시설로는 최대 감염기록을 나타냈다(질병관리청, 2021). 법무부는 뒤늦게 감염수용자들을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으로 이송 치료토록 했으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수용자들이 구해달라는 호소문을 창문에 붙이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노출됐다. 결국 교정당국이 COVID-19와 같은 응급 의료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한국일보, 2020. 12. 28; 뉴시스, 2021. 1. 6). 2021년도 교정의료 예산을 전년도 보다 감소시켜 돌발성 감염질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중앙일보, 2021. 1. 31). 그런데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COVID-19 발병률은 일반 인구보다 5.5배 높았고 사망률은 3배 정도 더 높아 미국 내 가장 큰 집단 발병 100건 중 90건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국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수용자 2600여 명이 사망하고, 114천여 명이 감염되는 등 COVID-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이에 따라 COVID-19 관련한 미국 교정처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해소와 조기석방 등의 대책을 제시한 Simpson & Butler(2020), Leibowitz, et al.(2021)의 연구와 폐쇄된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가족간 관계회복의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한 Dallaire, et al.(2021)의 연구, 교정공무원의 감염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Nowotny, et al.(2021)의 연구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정책을 제시한 Liebreznz, Michael, et al.(2020)의 연구

와 Hewson, et al.(2021)의 연구, 교정시설 수용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차별성 문제를 진단한 Mills & Salisbury(2021)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감염질환 상황 발생시 교정당국이 취할 국제인권규범과 미국의 관련 규범의 차이, 미국 연방교정국의 뒤늦은 대처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 관련 회원국의 교정당국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살펴보고, 인권국가임을 주창하는 미국의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규모 COVID-19 감염 사망 관련 쟁점들을 분석해 그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교정당국 및 관련 학문분야에서 교정시설의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국제사회의 교정시설 감염질환 관련 준칙

1.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상 규정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은 과밀화와 공동작업 및 공동취사 등으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COVID-19와 같은 감염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감염질환에 대한 예비적 혹은 대응적 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 SMRs 1955)은 유엔에서 1955년에 채택돼 1957년에 1차 개정규칙(663 C(24))을, 1977년 5월에 2차 개정규칙(2076(62))을 승인했다. 이어 2015년 12월에 3차 개정규칙을 채택해 넬슨만델라규칙(Nelson Mandela Rules)이라고도 칭한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2개 장 10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UN, 2021).

따라서 이 규칙은 국제사회가 수용자처우와 관련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최영신, 2015; 허경미, 2019).

¹⁾ 국제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이고, 2019년 말 처음 인체감염이 확인됐다는 의미에서 COVID-19로 명명키로 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하 COVID-19로 표현하며, 기사 등을 인용 시에는 원문 그대로 코로나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표기할 것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제24조부터 제35조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장을 별도로 두었다. 이 가운데 특히 감염질환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제24조 제1항은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일반 공공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HIV 감염, 결핵, 기타 감염성 질환 및 약물의존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해 치료 및 보살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5조는 모든 교정시설에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과 전문의료진 체제를 갖춘 것을, 제26조는 의료기록관리 및 수용자 의료기록 보안의무를, 제27조는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이 필요한 수용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공공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며,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30조는 교정시설 의료진은 구금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기간 동안 임상격리

를 실시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2조는 교정시설의 의료진과 수용자와 피구금자와의 관계는 사회와 동일한 윤리적·전문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국가는 COVID-19에 감염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일반시민과 동일 수준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임상격리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준해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피의자 비구금처우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소년사법관리를위한 최소표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비구금조치에대한유엔표준최소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the Tokyo Rules) 및 구금시설 내 보건: 구금시설 보건의 필수사항에 대한 WHO 가이드(Health in prisons: a WHO guide to the essentials in prison health, 2007) 등에서도 감염질환에 대한 교정시설 처우규정을 찾을 수 있다(최영신, 2015: 허경미, 2019).

<표1> WHO의 교정시설 코로나 19 전이 단계 진단

구분	COVID-19 전이 상황
무 감염 전이 진단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 28일(최대 잠복기의 2배) 동안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수용자의 감염 위험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
외부유입/산발적 진단	지난 14일 동안 발견된 감염사례는 모두 외부 유입이거나 산발적이고, 추가로 교정시설 내 지역적으로 획득된 전이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없는 경우. 수용자의 감염위험이 최소화됐음을 의미
특정시설의 감염사례의 발견	지난 14일 동안 감지된 사례는 외부 유입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고, 특정시설의 시간대, 지리적 위치 및 노출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교정시설의 외부 노출을 피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
지역사회 전파 - 레벨1(Community transmission -level 1(CT1))	지난 14일 동안 발견된 감염 사례가 특정시설에 제한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지 않음. 전파는 특정 인구 하위 그룹에 집중될 수 있고, 일반 시민에 대한 감염위험은 낮음을 의미
지역사회 전파 - 레벨2(Community transmission -level 1 (CT2))	지난 14일 동안 발견된 감염 사례가 교정시설에 널리 퍼진 경우. 특정 인구 하위 그룹에 덜 집중된 전파, 일반 인구에 대한 중간 정도의 감염위험
지역사회 전파 - 레벨3(Community transmission -level 4 (CT3))	지난 14일 동안 지역적으로 널리 퍼지면서도 높은 발생률. 전파가 광범위하고 일반 인구에 대한 높은 감염위험
지역사회 전파 - 레벨4(Community transmission -level 4 (CT4))	지난 14일 동안 지역적으로 획득되고 널리 퍼진 사례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경우. 일반 인구의 높은 감염위험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2. WHO의 교정시설 COVID-19 관련 규정

WHO는 모든 국가는 COVID-19에 대한 대비, 경보 및 대응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공중보건에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교정시설 역시 그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WHO, 2021: 1). 그리고 각국이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장소에서의 COVID-19 대비, 예방 및 통제」 지침을 2020년 3월 및 2021년 2월 등 두 번에 걸쳐 제시했다.²⁾

WHO는 이 지침에서 교정시설의 코비드 19 감염 사례 및 발병을 관리하는 데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WHO, 2021: 3-4). WHO는 단계별로 감염예방및통제(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 이하 IPC라고 칭함) 전략을 제시했다. COVID-19 의심 또는 감염된 수용자들은 별도 시설에 수용하고 다른 수용동과 격리하는 조치 즉 코호팅(Cohorting)을 하며, 코호팅 시설의 COVID-19 의심 또는 감염 환자는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환기가 잘되는 구역에 배치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COVID-19 감염수용자는 의료격리를, 나아가 COVID-19 감염의심자 혹은 감염자 접촉 수용자는 14일간 격리토록 했다(WHO, 2021: 9-10).

나아가 WHO는 교정당국은 COVID-19에 대응하는 보건당국과 공동해 IPC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및 교정직원에게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지급하며, 마지막 감염자가 나온 후 28일 경과 전까지는 COVID-19가 종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면담을 제한하고, 지역사회로 출퇴근을 하는 교정직원이 감염매개체(infection vector)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일상생활도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IPC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염수용자 석방 시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연계되도록 교정당국과 보건당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출소자들에 대해서 14일간 격리해 지역사회와 출소자를 모두 보호토록 했다(WHO, 2021: 24-26).

3. 소결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WHO의 수용자 감염질환과 관련한 대응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 규정의 핵심은 구금시설에서 COVID-19와 같은 감염질환의 보건의료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보건당국)에 있고, 국가는 일반인과 동일 수준으로 수용자에게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당국과 연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2>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WHO 지침의 규정 비교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WHO 지침
• 보건의료서비스 무상 제공 • 일반인과 동일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제24조) • 모든 교정시설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 체제유지(제25조) • 수용자의료관리 및 보안유지, 응급의료체제 유지, 모든 의료 관련 결정은 보건의료전문가의 권한 (제26조) • 비의료분야 교정직원의 의료 관련 결정 배제(제27조) • 감염질환 수용자 격리 및 치료 (제30조) • 의료진과 수용자의 관계는 일반 사회와 동일한 윤리적 · 전문가 적 기준 유지(제32조)	• 교정시설의 진단기준 제시 • 지역사회 전파 레벨 단계 분류 기준제시 • 감염의심자 1m 이상 거리유지 격리 • 감염자 의료 격리 • 감염자 접촉 수용자 14일간 격리 • 교정직원, 수용자 모두에게 손 세정제, 마스크 지급 • 교정직원의 지역사회와의 감염매개체 우려 일상행동 제약 • 석방수용자 14일간 격리 • 방수용자 지역사회 연계 의료지원 최종 - 감염자 발생 28일 후 COVID-19 종식 체제 유지

2)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3월 15일 자료 Preparedness,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prisons and other places of detention Interim guidance Ver.1를, 그리고 보다 최신 통계 및 대책 등을 보완해 2021년 2월 8일 자료 Preparedness,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prisons and other places of detention Interim guidance Ver.2를 발간했다(WHO,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 2021. 10. 10).



III.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실태

1. 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1) 일반적 의료처우 규정

미국은 연방정부의 1787년 헌법 제정 이후 각 주정부들은 주헌법을 제정했고, 이 주헌법에 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최초로 델라웨어의 1792년 헌법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Del. Const. of 1792, art. I, § 11). 이후 노스캐롤라이나(N.C. Const. of 1868, art. XI, §6), 테네시(Tenn. Const. of 1870, art. I, §32), 와이오밍(e Wyo. Const. art. I, § 16) 및 조지아(Ga. Const. art. I, §1) 등이 수용자의 건강 처우 등을 헌법에 규정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수용자에게 음식과 의복,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 마다 법적 형식과 세부 사항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신규 수용자에 대한 초기 신체 및 정신 검사와 수감 중 공동부담금을 통한 지출 등이며, 세부적인 것은 교정당국이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 수정헌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는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Amendment 8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Ratified 12/15/1791.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관련해 에스텔 대 갬블(Estelle v. Gamble, 429 U.S. 97 (1976)) 사건을 통해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congress.gov, 2021).³⁾ 이 판결은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의 의료적 필요를 고의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8조에 의해 금지된 ‘불필요하고 무자비한 고통의 가해’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Sonntag, 2017).

이 판결 이후 교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의 의료분쟁 소송이 줄을 잇자 1995년 교도소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PLRA)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정시설 수용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고충처리제도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소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예납을 요구하고 있다(ojdp, 2021). 한편 이 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분쟁 소송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불만에 대한 소송을 억제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Datta, Michaels, & Chamberlain, 2017).

1998년에는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및 감염성 질병 수용자 처우에 관해 규정한 교도관보건및안전법(Correction Officers Health and Safety Act of 1998)이 제정됐다(govtrack, 2021). 이 법은 ① 연방 범죄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 전에 구금된 사람

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교도관에게 HIV를 전염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HIV 검사를 받도록 하며, ② 검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③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노출 우려 대상자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리고 예방적 또는 관련 치료 필요성을 알려야 하며, ④ 검사 결과 HIV 감염당사자, 접촉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하며, ⑤ 이러한 사실을 민형사상 소송자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⑥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⑦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탐지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을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 지우고 있다. 이 법은 교정시설 교도관 및 수용자의 HIV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질병의 감염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안전을 도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연방정부가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제정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ichaels, & Wagner, 2020). 이어 연방정부는 2000년에 연방수용자의료본인부담금법(Federal Prisoner Health Care Copayment Act of 2000)을 제정했다(congress.gov, 2000).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최

소 \$1의 공동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동부담금이 제외되는 경우는 응급치료, 만성질환, 전염병,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 등이다. 또한 배상명령을 받은 수용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75%는 피해자기금에, 나머지 25%는 코페이먼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리 비용 지출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수용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제공되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의료수요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선별적 제공이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Wyant & Harner, 2018).

또한 2010년에 제정된 이른바 오바마케어법 즉 건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ACA)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기회와 진료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1965년에 제정된 Medicaid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일부 질병의 경우 치료범위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ACA는 제외됐던 분야의 질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ACA의 실시로 대부분 빈곤층에 속하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과 출소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Espinosa, & Regenstein, 2014).



3) 에스텔 대 갬블(Estelle v. Gamble, 1976) 사건은 텍사스 교정국에서 복역하던 J. W. 갬블(J. W. Gamble)이 트럭에서 면봉을 신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발단이다. 그는 1973년 11월 9일 작업 중 숨 더미가 등에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고, 약 3개월 동안 통증을 호소하며 작업명령을 거부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격리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치료를 받게 했다. 1974년 2월 11일 갬블은 교도소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교도관과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판시했다(congress.gov, 2021).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 2. 3.(목), 2. 4.(금) 2. 16.(수), 서울동부구치소
- 2. 9.(수), 대전교도소
- 2. 10.(목), 신축 대구교도소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및 교정시설 이전 부지 현장 점검 등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 2. 1.(화), 인천구치소 / • 2. 3.(목) ~ 2. 5.(토), 2. 16.(수), 서울동부구치소 / • 2. 9.(수), 대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 2. 10.(목), 대구교도소, 신축 대구교도소 / • 2. 16.(수), 2. 17.(목) 안양교도소 / • 2. 20.(일), 수원구치소

주요 내용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방역 관리 점검 / 현장 근무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등

법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 2. 5.(토), 2. 7.(월) ~ 2. 10.(목), 서울동부구치소
- 2. 16.(수), 안양교도소

주요 내용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현장 점검 등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일자-장소

- 2. 11.(금) 09:00,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
※ 줌(zoom)을 이용한 영상 회의

참석자

- (교정본부) 교정본부장, 의료과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등 4명
- (외부 전문가) 권준수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 등 3명
- (미국 측) Steven Leifman (플로리다주 제11순회 법원 판사) 등 4명

주요 내용

정신질환 수용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적정 처우에 대한 논의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21일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신경우 청장은 전입 직원들에게 “전입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교정본부는 2월 1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관련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향후 확진 규모 확산 시 대응 방안 및 방역 물품 등을 점검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법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1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현황을 보고받은 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상한 각오로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2월 20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확진자 격리 시설인 수용자 종교관, 컨테이너 격리 거실 등 현장 곳곳을 점검했으며, 어려운 시

기이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또한, 직원들의 감염 방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수용자 긴급 이송 실시

인천구치소는 2월 1일과 8일 신축 대구교도소로 수용자 긴급 이송을 실시했다. 인천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했으며, 교정본부장,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이송 현장을 지휘해 빠른 시간 내에 안전사고 없이 진행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2월 15일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동의한 180명에게 접종을 실시했다. 하영호 소장은 “이번 백신 접종이 수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사랑의 손잡기 활동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마도면, 송산면의 어르신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

는 사랑의 손잡기 활동을 실시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2017년부터 마도면과 송산면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여덟 분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보안정책단장 정책현장 방문

김승만 보안정책단장은 2월 18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기관의 대응 정책과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김승만 단장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2월 23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확산 관련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여주교도소의 대응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신경우 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커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신규 직업훈련교사 채용식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21일 신규 직업훈련교사 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꽃다발 증정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군오 소장은 “그 동안 공석이었던 훈련실장 자리가 채워져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할 큰 힘이 생겼다”며 이인섭 훈련실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2월 14일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입 신고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임명장 전달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김현우 소장은 “우리 소는 다른 곳에 비해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돼 업무를 하는데 있어 쉽지 않겠지만 높은 역량만큼 잘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보안과 고충처리팀 등 사무실 개선

원주교도소는 2월 1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안과 고충처리팀, 심리치료팀, 조사팀 사무실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다 깨끗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모범 교도관 시상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2월 8일 ‘모범 교도관 시상식’을 개최해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교위 정영수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이달의 모범 교도관)’로 선정됐고, 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모범 교도관 표창

영월교도소는 2월 7일 월례회를 통해 이달의 모범 교도관 5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날 월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손용대 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에 입각한 근무 태도로 직원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신규 식품위생서기보 채용식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2월 7일 신규 식품위생서기보 채용식을 개최했다. 기존 식품위생서기보의 빈자

리를 대신할 경력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직원 식단 및 수용자 식단의 업무 공백에 신속히 대처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전출 직원 신고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월 18일 전출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정진 지소장은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비누 아트 체험 실시

소망교도소는 2월 9일 예능인성 교육 진행에서 비누 아트 체험을 첫 실시했다. 비누의 재료는 코코넛, 올리브오일 등 인체에 무해 한 오일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번 체험은 기존의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로 수용자들이 비누를 직접 만들었으며 완성된 비누를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광민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개청

대구지방교정청은 2월 22일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및 권역별 통일된 정밀 분류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분류센터를 개청했다.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전입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맡은 임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등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기관에서 지원 나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오광운 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 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 상황 속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박호서 소장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홍성진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상담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월 3일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상담을 실시했다. 수용자 11명에 대한 상담은 내부 강사(교감 신삼영, 교도 정윤승)가 진행했으며,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유도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수용자 물품 기증

창원교도소는 2월 15일 박운규 교정위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기증받았다. 박운규 교정위원은 치과의사로서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날 기증받은 기부금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직원 및 대체복무요원 격려 선을 지급

부산교도소는 2월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방역 대책 추진 등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직원 및 대체복무요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소확행 이벤트를 실시했다. 박소연 소장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준비한 작은 이벤트로 직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임시 격리 컨테이너 추가 설치

포항교도소는 2월 15일 여성 수용자 전용 임시 격리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했다. 포항교도소는 그동안 임시 격리 컨테이너 2곳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자 입소자를 위한 별도의 임시 격리 시설이 없어 여성 수용동 내의 보호실을 이용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운용상 부족한 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청렴이행서약서 서명 실시

진주교도소는 2월 7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하며 구입·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이행서약서 서명을 실시했다. 이번 서명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각 업무 담당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소관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깨끗하고 건전한 법무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대구구치소는 2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작업 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안전 및 보안시설을 점검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4일 안전 및 보안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전반 청결 상태 확인 및 소화 설비 점검, 노후 건물 점검 등 보안시설물에 대해 보안과 및 복지와 직원들이 점검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실시

안동교도소는 2월 25일 수용자 약 1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했다. 육근우 소장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교정시설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지훈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배경석 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감염 예방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2월 9일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임시 격리시설, 직원 상황 대기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현장 직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설을 맞이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진보면 소재 결혼가정 등 지역 주민 5가구를 선정해 비대면으로 위문금을 전달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수용자 물품 기증

울산구치소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격려 물품(가래떡)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격려 물품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자 마련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 아래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서보균 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혈액 수급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더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임시 격리 컨테이너 추가 설치

통영구치소는 2월 9일 임시 격리 컨테이너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임시 격리 컨테이너는 남성 수용자용 1곳과 여성 수용자용 1곳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 March Vol. 550

으로 나눠서 설치해 운용상 부족함을 해소하고, 여성 입소자를 위한 별도의 임시 격리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설치

밀양구치소는 2월 15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이용 민원인의 충전 편의를 위해 민원인 주차장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했다. 급속 충전소는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신규 직업훈련교사 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2월 14일 신규 직업훈련교사 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채용된 한기에 직업훈련교사는 “상주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고, 피부미용 교육 업무를 비롯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소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14일 전입 직원에 대한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신고식에서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덕담과 감사의 말을 주고받았다. 정병현 청장은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일선기관과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연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8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발생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 내에서 드라이빙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확진자 접촉 의심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는 소 내 체육관 부근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을 이용해 차량 내에서 하차하지 않고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모범 교도관 시상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2월 3일 ‘2022년 2월 시상식’을 개최해 1월의 모범 교도관으로 선정된 교감 박순권과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교감 허순현, 교감 이일권, 교위 조상원, 공업서기보 한종오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정행정 발전 유공으로 교감 박순권은 대전지방교정청장 표창, 교감 허순현 등 4명은 소장 표창을 받았다.

천안교도소 / 교사 조영웅

정문 현판 문구 공모전 결과 발표

천안교도소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문 현판 문구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2월 11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교감 이상학의 ‘믿음 주는 행정 신뢰받는 교정’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천안교도소 정문 현판 문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수용자 물품 기증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파배기 900개를 기증받았다. 교정협의회 송낙규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각종 교육·교화 행사

가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 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신규 조리원 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2월 14일 신규 조리원 채용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영식 대신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자급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대하 소장은 측사를 통해 신규 조리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송근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충주구치소는 2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는 2월 14일 참빛선교회, 회현동새마을협의회, 새마을중구지회로부터 땅콩을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받은 땅콩은 정월대보름(15일)에 직원 및 수용자 등에게 전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갑질 예방 및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갑질 예방 및 반부패·청렴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1단계 교육은 기관장 및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

교정기관 NEWS

부강사를 통한 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했고, 2단계 교육은 1단계 교육 참석자들이 부서원들 대상으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활용해 릴레이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문 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 코로나19 확산을 조 기에 차단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2월 14일 승진 직원에 대 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시설서기 신재욱은 승진 임용을 명받아 시설주사보로 임용됐다. 이번 임용 식은 화분 증정, 기념 촬영, 지소장 축하 메시지 전 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광주지방교정청은 2월 동안 각 소속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현장을 점검했다. 신용해 청장은 소속기관 현장 대응 실태와 코로나19 매뉴얼, 격리 수용동 방역 활동 점검 및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업무협약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

광주교도소는 2월 17일 업무협약 기관인 광주 바 른안과의 협조로 전 직원에게 안과종합검진권을

배부했다. 광주 바른안과는 2019년 9월 20일 광 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할인 등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수용자 물품 기증

전주교도소는 2월 1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에게 지급할 간식 1,200명분을 기증받았다. 임관 교정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이 동 요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삼재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용자들이 이번 간식 기증으로 수용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표어 공모전 실시

순천교도소는 2월 18일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 로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표어 공모전은 3월 4일까지 진행되며 교도관 회의에서 각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하고 참가자 5명을 추천 해 커피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지훈

모범 교도관 시상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2월 17일 이달의 모범 교도관으로 교위 문환영, 교사 김형창을 선정해 표창했다. 교 위 문환영과 교사 김형창은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수용자 물품 기증

군산교도소는 2월 15일 군산 성흥사 송월 주지스 님으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과자 1,000개를 기증 받았다. 송월 주지스님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외부와의 소통이 축소되고 가족, 지인과의 만 남이 그리울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제주교도소 / 교위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 방역 물품 지원

제주교도소는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방역 당국 으로부터 방역 물품인 KF94 마스크 15만장을 지원 받았다. 이번 지원은 제주교도소가 제주특별자치 도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이뤄낸 성과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 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팀에서 주 관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을 가정해 신속한 초동 조치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호구 착용, 소독 실시 등 대처법을 숙 지해 직원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진행됐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실시

해남교도소는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백 신 추가 접종을 희망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 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수의 교정시설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출소 예정자 취업 및 창업 교육 실시

정읍교도소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출소 예정자 를 위한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 가의 지도에 따라 이력서 작성 요령, 면접 시 대응 방법 등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 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엄중함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Re:mind

모범 공무원



인천구치소 교위 권혁철

권혁철 교위는 1992년 임용 후 약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강직한 성품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많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총무과 수용기록 업무 담당으로 코로나19 확진 수 용자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 건의 및 조절석방 등 업무에 있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업무를 처리했다. 수용자의 형 집행과 관련된 서류를 빈틈없이 처리해 불법구금 및 오인석방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수용기록 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경주교도소 교위 이기동

이기동 교위는 총무과 민원실 보관품 담당자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인 응대 및 수용자의 보 관품 사용·반납·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인 보관품 차입 신청에 대해 물품의 수량 및 부정물 차단을 위한 물품 검사 실시 후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한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 중 수용자의 지갑 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마약을 적발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대전교도소 교감 박종호

박종호 교감은 수용자 개개인의 신상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개별 상담을 실시하면서 수용자 심성 순화 및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제 수용자의 경우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상 담을 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교정 참 여 인사와 긴밀한 협의로 트리 5개, 산타 모형 1개를 기증받아 소 내에 설치하는 등 환경 미화 개선을 통해 수용자 정서 순화 및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장흥교도소 교위 김용곤

김용곤 교위는 1995년 임용 후 약 26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과 의료수용동 담당 근 무자로 의료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성실한 근무 자세로 수 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본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뿐 아니라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독자
퀴즈

관련 사진 연결하기

아래 사진은 월간 <교정>의 각 코너에 실린 사진입니다. 같은 코너에 등장한 인물이나 풍경 사진을 빠르게 연결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예) A-3, B-1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사진끼리 연결해 주세요.

A



B



C



D



1



2



3



4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교정>의 '교정의 일기'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투고로 만들어집니다.
일상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정의 일기'에 게재됩니다.

시, 수필, 그림(서예) 등 어떤 분야도 대환영!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상품권 10만 원

